# R&D팀

# 2021년 8월 MICE 산업 동향

2021. 9.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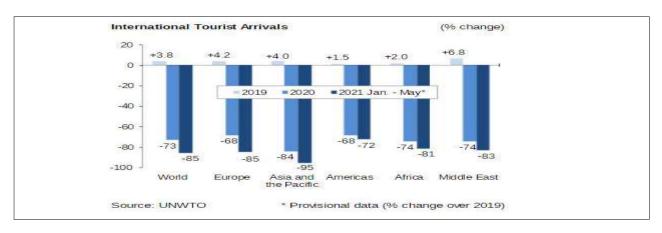
1.	세계관광기	기구(UNWTO),	2021년	국제관광지표	분석	 . 3
2.	해외시장	동향				 . 7
3.	국내시장	동향				 18

# 1. 세계관광기구(UNWTO), 2O21년 국제관광 지표 분석<sup>1)</sup>

# 가. UNWTO 국제관광 지표

# ■ 세계관광기구(UNWTO), 국제 관광 지표 요약

- 세계관광기구(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는 5월과 7월에 거쳐 2021년의 국제관광객의 변화를 코로나19이전인 2019년 동기간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세계관광기구는 2021년을 역대 최악의 해로 평가함
  - 2021년 1월~5월의 해외 인비운드 여행객의 비율은 2019년에 비해 85%가량 감소했으며, 2020년에 비해 65% 감소함
  - 이는 2020년 1월~5월보다 약 1억 4,700만 명, 2019년에 비해 4억 6,00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지역별 분석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인바운드 여행객이 95%가량 하락하면 서 아시아태평양을 찾는 대부분의 인바운드 여행객이 발길을 멈춘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유럽(-85%), 중동(-83%), 아프리카(-81%) 순으로 하락세를 보 였고, 미주 지역은 72% 하락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음
  - 인비운드 여행객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2월 약 34%에 달하던 전면 폐 쇄 목적지가 5월 25%로 감소하며 여행 제한 규정이 완화되자 국제관광이 소폭 상승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폐쇄된 목적지가 33개(전 세계의 65%)로 가장 많은 지역에서 국경 폐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은 7개 지역으로 약 8%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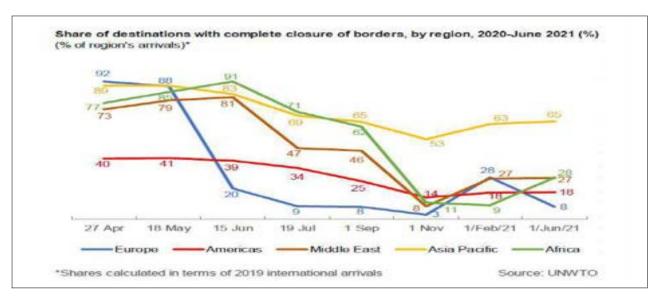


[그림 1]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국제관광객 감소율

<sup>1)</sup> 본 고는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2021년 5월과 7월에 발간된 'World Tourism Barometer'를 바탕으로 작성함

#### ■ 전세계 백신 접종과 국경 폐쇄율 변화

- 전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활성화되자,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에게 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EU 디지털 인증서와 같이 안전한 여행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점진적인 여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1년 7월 20일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27%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함
- 대륙별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북미 인구의 46%와 남미 39%, 아시아 24%, 아프리카 3%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유럽은 약 46%가 2차 백신 접종 까지 완료함
  - 한국의 경우 9월 16일을 기준으로 68.1%가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41.2%임
- 5월부터 유럽은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국경 폐쇄를 완화했지만, 아시아태평 양과 아프리카는 폐쇄를 강화했고, 중동과 미주는 현행을 유지한 것을 통해 일 부 지역에서는 델타 변이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과 6월까지 국경 폐쇄율을 추정하면 [그림 2]와 같으며, 2020년 4월에는 미주를 제외한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는 73%~92%의 폐쇄율을 보였음
-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면서 가장 최근에는 폐쇄율을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는 미주 와 2020년 4월부터 다소 높은 폐쇄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는 달리 유럽은 2020년 초기 강력한 폐쇄 조치에서 벗어나 8%의 폐쇄율을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유럽 8%, 미주 18%, 중동 27%, 아프리카 28%, 아시아태 평양 65%를 기록함



[그림 2] 대륙별 국경 폐쇄율

####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의 변화를 보면, 2020년 국제관광 수입이 64%가 량 감소했으며, 이를 환산하면 약 9천억 달러(한화로 약 1,055조 4,3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국제관광의 감소로 인한 총 수출입 손실을 추정하면 약 1조 1천억 달러로(한화로 약 1,289조 9,700억 원) 아시아 태평양 지역(-70%)과 중동(-69%)지역이 가장 큰 손실을 봤으며, 이는 강력한 국경 폐쇄 조치로 국제관광객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임
- 2021년 상반기 국제관광수입은 2019년 대비 50~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국가가 5월 국제선운행을 일부 허용하면서 5월의 국제관광수입은 소폭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남
  - 몇몇 국가에서는 국내 여행 시장이 재활성화되면서 관광 회복의 조짐을 보이며, 특히 중 국과 러시아의 경우 국내 항공 좌석 수용량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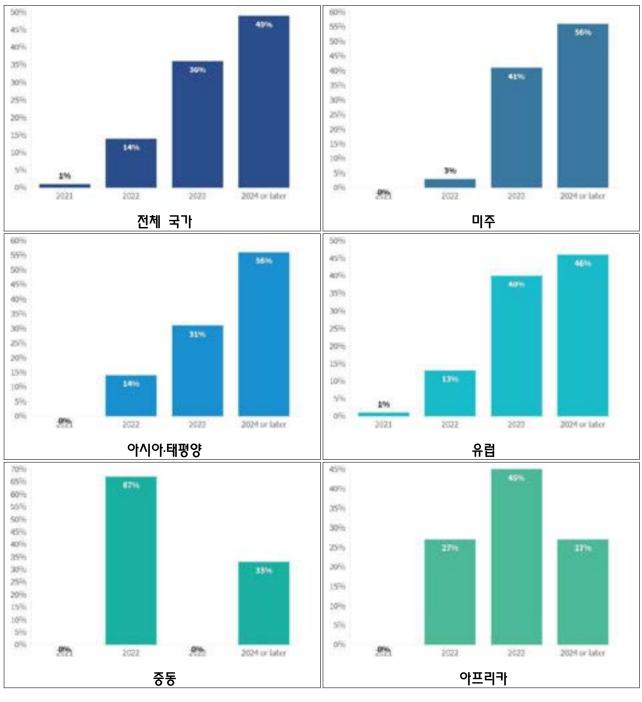
# ■ 국제관광 회복 시점 예측

- UNWTO 관광 전문가 패널조사에 따르면, 백신 접종에 따라 부분적으로 국제 관광시장의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특히, EU 디지털 인증서의 신뢰성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남

\_ \_ \_ \_

. . . . .

- 국제관광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점에 대하여 전문가의 2024년 또는 이후(49%), 2023년(36%), 2022년(14%), 2021년(1%) 순으로 예측하였음
  - 여행 제한 정책과 방역 프로토콜이 미흡한 것이 관광 재개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함
  - 여행 회복에 있어 '백신접종'이 핵심적인 요소로, 테스트의 간편화와 국가 간의 의사 소통이 중요함



[그림 3] 국제관광의 팬데믹 이전(2019년) 수준 회복 예상 시점 설문 결과

# 2. 해외시장 동향

# 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 싱가포르: 백신 2차 접종자 대상, 비즈니스 이벤트 코로나19 제한 규정 완화
-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자, 비즈니스 이 벤트에 대한 코로나19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예방 접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명의 MICE 행사 참석을 허용했으며, 연설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MICE 행사 외에 라이브 공연, 스포츠 행사도 최대 백신 접종자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음
- 싱가포르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 규제를 완화했으며, 9월 8일부터는 독일과 브루나이에서 오는 예방접종 완료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목적 예방접종 여행 라인 (all-purpose Vaccinated Travel Lanes, VTL)을 운영할 계획임
  - '다목적 예방접종 여행 라인' 여행객들은 지정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며, 자가격리 기간 과 여행 시 코로나 19 추가 검사 없이 여행할 수 있으며, 최대 5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함
  - 그러나, 여행 전에 최소 22,000달러(한화로 2,579만 5,000원)의 여행자 보험을 구매해야 하며,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동안 위치 추적 앱을 사용해야 함



[그림 4] 싱가포르 MICE 포럼 행사장 장면

# ■ 스리랑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봉쇄 조치 실시

- 스리랑카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 서비스만 가동 하며 열흘간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기로 함
- 봉쇄 조치는 8월 20일 10시부터 8월 30일 오전 4시까지로, 봉쇄 기간 동안 모든 공공 및 민간 시설의 문을 닫고, 필수 및 비상 서비스만 오픈할 계획임
- 스리랑카 당국은 8월 16일부터 전국 야간 통행금지를 무기한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 행사, 세미나 등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음
- 이러한 봉쇄 조치는 의료계, 노동조합, 시민단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 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호소에 의한 것임
- 스리랑카 관광청은 8월 1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도인들만 입국할 수 있 도록 할 것이라 밝혔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남미 국가의 입국을 허 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 ■ 캄보디아: 전체 인구 75% 이상 백신 접종 완료로 2021년 4분기 국경 개방 고려

- 캄보디아는 활발한 예방접종 캠페인을 통해 인구의 75%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일부는 세 번째 부스터샷을 맞고 있고, 현재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1차 접종이 진행 중임
- 이그제큐티브 원 컨설팅(Executive One Consulting)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8월 말까지 성인 인구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2022년 7월~9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한 태국과 베트남과 상당히 비교되는 수치임
- 디헬름 트래블 캄보디아(Diethelm Travel Cambodia)의 로니 달호프(Ronni Dalhoff) 상무는 백신 접종의 선두에 있는 캄보디아가 재개방 과정에서도 세계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힘
- 정부 관계자 일부는 2021년 4분기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관광객에 한하여 국경을 개방해 관광업계의 손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 태국: 퀸 시리킷 국제 컨벤션센터, 2022년 9월 재개장 목표로 확장 공사 착수

- 2019년 코로나19로 운영을 정지했던 태국의 퀸 시리킷 국제 컨벤션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 QSNCC)가 5배가량의 확장 공사를 거쳐 2022년 9월 공식적으로 재개장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힘
- 퀸 시리킷 국제컨벤션센터의 총 규모는 7만8500㎡로 4만5000㎡ 이상의 주요 전 시장 2곳, 1만㎡에 육박하는 대형 회의장 2곳, 미팅룸 50곳 등 모든 공간에 최 신 기술을 탑재할 예정임
- 퀸 시리킷 국제컨벤션센터는 센터까지 지하철(Metropolitan Rapid Transit, MRT)을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2,700여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 예정임
- TCC Assets의 디렉터인 파노트 시리바다나박디(Panote Sirivadhanabhakdi)는 태국의 위치에 의한 훌륭한 접근성과 다양한 여행 목적지 등의 강점을 통해 국제 MICE 및 이벤트를 선도해 세계적인 이벤트 플랫폼으로 알릴 것이라 밝힘



[그림 5] 퀸 시리킷 국제컨벤션센터 전경

. . .

# ■ 태국: 태국 컨벤션전시뷰로, 2021~2023년 컨벤션 산업 3개년 로드맵 발표

- 태국 컨벤션전시뷰로(Thailand Convention and Exhibition Bureau, TCEB)는 2021년~2023년까지의 컨벤션 산업 3개년 로드맵을 공개함
- 3개년 로드맵에는 태국 MICE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컨벤션행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으며, 컨벤션 생태계 업그레이드, MICE 산업 타겟팅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세움
  - 새로 공개된 로드맵에 따라 태국 컨벤션전시뷰로는 '태국 4.0' 산업에 대한 컨벤션 생 태계 기능과 역량 개선에 중점을 맞출 예정임
  - 태국 4.0은 경제부흥, 사회적 웰빙, 인간의 가치 향상, 환경 보호를 목표로 미래 10대 산업으로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의료 관광, 농업 및 생명공학, 미래 식품, 로봇 공학, 항공 및 물류, 바이오 연료 및 생화학, 통합의료서비스 및 디지털 산업이 있음
- 태국 컨벤션전시뷰로의 수석 부사장인 니차파 요스위(Nichapa Yoswee)는 로드 맵을 통해 태국 컨벤션전시뷰로의 역할이 MICE 산업 서포터에서 성장 동력 (Growth Driver)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힘



[그림 6] 태국컨벤션뷰로(TCEB) 웹사이트

# 나. 미주 지역

# ■ 미주: 주요 국제무역박람회, 코로나19 방역 프로토콜 하에 대면 행사 개최

- 주요 국제무역박람회가 미국에서 코로나19 안전 방역지침을 따르며 개최되었고, 일 부 주요 도시와 주는 백신 의무화를 통해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중임
  - 8월 9일~13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원 라스베이거스(Wynn Las Vegas), 베네치아 엑스포(Venetian Expo), 시저스 포럼(CAESARS FORUM) 등이 개최되었으며, 모든 참석자, 참가 업체 및 직원에게 예방 접종 증명서 인증 절차 수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무료 코로나 19 검사 등을 실시함
  - 뉴욕과 런던은 바, 헬스장, 영화관, 실내 공연장 등 여러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 예 방 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또한, 2022년 1월 5일~8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세계적인 기술무역박람회인 CES 2022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하이브리드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며, 행사 대면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확인증을 제시해야 함
- CES의 주최협회인 소비자 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는 항체 검사 증명서를 백신 접종 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으며, 협회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박람회 개최를 위한 안전 프로토콜을 발표할 것이라 밝힘





[그림 7]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예시

#### ■ 미주: 시카고, 올랜도 등 미국 전역 대면 무역박람회 성공리 개최

- 7월 시카고와 올랜도 등 미국 전역에서 무역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며, 1,000명~2,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함
- 시카고에서 7월 14일~15일에 광고 전문 연구소(Advertising Specialty Institute, ASI)가 주최한 ASI 쇼는 중서부에서 3,500명 이상의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과 계약 등이 이루어지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창출함
- 또한, ASI 쇼는 48개의 신규 전시업체와 2,400개 이상의 유통업체 등 290개 전시 부 스를 유치하여 최신 홍보 아이템과 코로나 19 고객 프로모션 아이디어 등을 선보임
- 올랜도의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센터(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 OCCC) 에서는 북미 최대 규모의 건축 컨퍼런스인 '커버링스 2021'을 개최했으며, 건축 업계와 디자인 전문가, 개발 업체, 방문객 등 총 2,500여 명이 참석함
- 코로나19로 인한 2년간의 공백기 후 개최된 박람회로 국제 전시관, 라이브 데 모, 교육 세션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방문객과 참가 업체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음



[그림 8] (좌)무역박람회 현장. (우) 오렌지카운티컨벤션센터(OCCC) 커버링스 2021

#### 다. 구미주 지역

# ■ 영국: 코로나 프리 선언 후, 신규 이벤트 예약 문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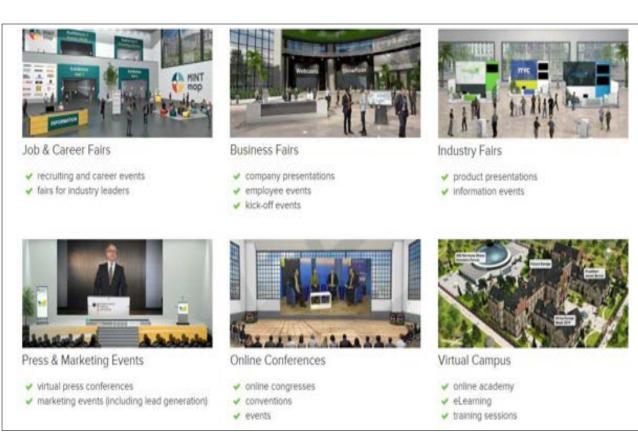
- 맨체스터 센트럴 (Manchester Central)은 올해 7월 19일까지 16개월간 코로나 19로 문을 닫았던 행사장의 재개장을 알리자 7월~8월까지 총 88건의 신규 이벤트 개최를 위한 행사장 이용 예약 문의가 이어짐
- 맨체스터 센트럴은 재개장 후 이미 한 달 동안 다양한 국제 페스티벌을 개최했으며, 9월에는 하우징 2021 (Housing 2021) 과 FittedUK 컨퍼런스로 7,500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임
- 맨체스터 센트럴 관계자는 코로나프리 선언 후, 급격히 증가한 행사 개최 문의 가 코로나19로 금지되었던 대면 행사에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힘

# ■ 영국: MICE 주최자 NEC 그룹, 모바일 주문 앱 '자페이고'와 파트너십 체결

- 영국의 전시회 및 회의 등 매년 700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MICE 주최그룹인 NEC 그룹이 모바일 주문 앱인 자페이고(Zapaygo)와 파트너십을 체결함
- 자페이고 앱은 NEC 그룹 계열사의 베뉴인 국제컨벤션센터, 복스 컨퍼런스 베뉴, 버밍햄 컨퍼런스 홀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식음료 사전 예약 플랫폼의 역할을 할 예정임
- 해당 앱을 통해 방문객은 행사장에서 먹을 식음료를 사전에 주문하고, 결제하기 때문에 식음료 구매를 위한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음

# ■ 독일: 기상 이벤트 플랫폼 'MEETYOO' 사용자 친화적 맞춤형 디지털 이벤트 환경 구축 솔루션 출시

- 독일 베를린 소재의 가상 이벤트 플랫폼 제공업체인 'MEETYOO'는 가상 플랫폼 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어도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가상 이벤트를 구성하고 15분 이내에 맞춤형 디지털 이벤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최신 이벤트 솔루션인 'MEETYOO Go'를 출시함
- MEETYOO는 10년 이상의 디지털 이벤트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자신 만의 디지털 이벤트를 만들 수 있도록 간단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뛰어난 디지털 기술과 연결성 등을 메리트로 제시함
- 3D로 설계된 플랫폼은 인터페이스를 재배치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품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가상 부스, 이벤트 홀, 최대 5명의 참가자 비디오 채팅, 설문조사, Q&A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



[그림 9] MEETYOO 플랫폼을 이용한 가상 행사 예시

# ■ 덴마크: MICE 업계 전문 채용 플랫폼 '더 허브' MICE 채용 관련 연구 결과 공개

- MICE 업계 전문 채용 플랫폼인 더 허브(The Hub)는 1,000명 이상의 에이전시 오너, 시니어 이벤트 전문가 등의 채용 계획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함
- MICE 업계 인사채용 담당자 32%는 언제부터 채용을 시작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미 채용을 진행 중이라 답했으며, 40%는 2021년 말, 16%는 2022년에 진행할 계획이라 답함
  - 올해까지 약 48%의 직원을 정리 해고했던 행사 기획 에이전시 52%가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 73%는 종사자들에게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가 가능한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답했으며, 22%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비즈니스 개발, 마케팅, 고객 서비스 및 관리팀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고객의 신뢰 회복과 새로운 고객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임
- 더 허브의 설립자인 로버트 켄워드(Robert Kenward)는 채용의 재시작과 새로운 근무제 도를 근무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힘



[그림 10] 더 허브 로코

# 라. 오세아니아 지역

# ■ 호주: 빅토리아 주, 방역 규제 강화로 통행 금지 조치 등 시행 계획 발표

- 빅토리아 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락다운을 9월 2일까지 연장하고, 2주간 9 시~17시까지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힘
  - 빅토리아 주는 70-80% 예방 접종률을 목표로 크리스마스까지 정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 빅토리아 주 정부는 MICE 업계에 4억 달러(한화로 약 3,446억 1,600만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했으며, 락다운 연장에 따라 3억 6,700만 달러(한화로 약 3,161억 7,417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것을 발표했으나, MICE 관계 자들은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힘
  - 빅토리아 관광 산업 위원회(Victoria Tourism Industry Council)는 빅토리아 주 관광 업계가 정부의 규제 조치 강화로 업계 존폐의 위기에 도달했으며, 관광 및 환대산업과이벤트 업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 호주: 시드니, 8월까지 총 156개 가상 및 하이브리드 행사 개최

- 국제 컨벤션센터 시드니(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Sydney, ICC Sydney) 는 8월까지 총 156개의 가상·하이브리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집계됨
- '미디어 헬스케어 리더 포럼'(Connect Media's Healthcare Leaders Forum), '랜드케어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토지 관리 컨퍼런스'(Landcare Australia's National Landcare Conference) 및 '뉴사우스웨일즈 전문 인증 컨퍼런스 법률 학회'(Law Society of New South Wales' Specialist Accreditation Conference) 등이 ICC Sydney 컨벤션센터의 가스튜디오인 '커넥트 플랫폼(Connect Platform)'을 활용하여 행사를 개최함
- 커넥트 플랫폼은 가상 행사를 위한 전용 시청각 시설로 메인 행사와 여러 세션을 동 시에 관리할 수 있는 최신 미팅 테크놀로지를 갖추고 있음
- ICC 시드니의 오디오-비주얼 디렉터 브라이언 내쉬(Brian Nash)는 ICC 시드니는 이벤트 주최자들에게 고품질의 하이브리드 및 가상 이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커텍트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시기에 MICE 행사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

# 마. 기타 지역

# ■ 중동: 바레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 AMS 글로벌 운영책임자로 선임 및 2022년 완공 계획 발표

- 바레인 관광전시공사(Bahrain Tourism & Exhibition Authority, BETA)는 중동지역의 바레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Bahrain International Exhibition&Convention Centre)의 운영책임자로 MICE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AMS 글로벌을 선임했으며, 바레인최대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착공 계획과 2022년 하반기에 완공 계획을 발표함
  - AMS 글로벌은 세계적인 경기장, 컨벤션 및 전시센터, 공연 예술 장소를 관리하는 세계적인 MICE 기업으로, 5개 대륙에 걸쳐 컨벤션센터 및 경기장을 관리하고 있음
  - 또한, 바레인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의 설립 목표는 다양한 이벤트와 MICE 콘텐츠를 개발하여 바레인 지역사회뿐 아니라 중동지역의 MICE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는 것임
- 바레인 국제 전시컨벤션센터는 총 부지 면적 30만 9,000㎡로 10개 홀에 9만 5000㎡ 규모의 전시공간과 4,000석 규모의 강당, 95개의 회의실, VIP룸, 이벤트 주최사 사무실 지원, 250석 규모의 레스토랑을 갖춤
- 또한, 바레인 국제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회와 컨벤션뿐 아니라 콘서트, 라이브 이벤트, 결혼식,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유연성과 최첨단 기 술을 갖출 예정임



[그림 11] 바레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전경

# 3. 국내시장 동향

. . . . . .

- 서울: 서울시설공단 '메타파크', 서울시립과학관 '게더타운' 등 비대면플랫폼 활용한 온라인 컨텐츠 출시
- 8월 20일, 서울시설공단은 3D 메타버스 플랫폼 제폐토에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주요 랜드마크를 실제처럼 구현한 '메타파크'를 오픈하여 콘텐츠를 제공함
  - 제페토란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얼굴인식·3D 기술 등을 기반으로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거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으며, 게임 및 SNS 기능을 모두 담고 있어 특히 1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어린이대공원의 주요 랜드마크를 실제처럼 구현한 메타파크는 정문, 팔각당, 식물 원, 숲속의 무대, 놀이공원(수영장), 포시즌가든을 포함한 6개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아바타를 통해 사계절 정원과 도심 야경 감상 등이 가능함
- 서울시설공단은 향후 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메타파크와
  연계해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밝힘
- 8월 11일, 서울시립과학관은 장기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게더타운'을 활용해 다양한 과학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서울시립과학관은 7월에 열린 '서울시립과학관 대학생 에듀서포터즈'의 발대식을 메타버스로 진행한 데 이어, 과학관 강사양성과정, 자체 정기 교육 등의 프로그 램도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행사로 운영할 계획임
-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과학관 방문과 다양한 체험 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 밝힘



[그림 12] (좌)서울시설공단 '메타파크', (우) 서울시립과학관 '게더타운'

# ■ 경기도: 일산, 킨텍스 총 4,853억 원 국비 및 지방비로 제3전시장 건립 사업 본격 추진

-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가 작년 1월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시를 통과한 이후 4,853 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제3전시장 건립 시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는 17만 8,566㎡의 전시면적을 보유하게 돼 세계 27위, 아시아 9위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장이 되며, 제3전시장 건설은 기존 1전시장과 통합해 10만㎡ 규모의 대형 행사를 통합된 공간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글로벌 전시컨벤션센터로서의 킨텍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임
- 킨텍스는 기본설계사 선정 후 약 7개월간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실시설계와 공 사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2025년 10월 준공될 예정임



[그림 13] 켄텍스 제3전시장 조감도

# ■ 경기도: '경기 유니크베뉴' 17개소 선정 및 국내외 MICE 시장 겨냥한 홍보 계획발표

- 8월 30일, 경기도는 전시복합산업 행사 개최 시 전통적인 회의 시설인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아닌 개최지역의 독특한 정취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경기 유니크베뉴' 17개소를 발표함
  - 선정된 17곳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파주), 한국민속촌(용인), 수원전통문화관(수원), 허브아일랜드(포천), 신구대학교식물원(성남), 더힐하우스(양평), 쁘띠프랑스(가평), 아트벙커B39(부천), 마이다스호텔 앤 리조트(가평), 현대 모터스튜디오고양(고양), 원마운트(고양), 광명동굴(광명), 김포 현대크루즈(김포), 에버랜드 리조트(용인), DMZ생태관광지원센터(파주),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파주), 남양성모성지(화성) 임
- 경기도는 4월부터 후보지 37곳을 추천받아 인프라, 접근성, 경영역량 등을 검토했으며, 학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심사단의 현장 답시를 거쳐 17곳을 최종 선정함
- 경기도는 해당 유니크 베뉴에 대한 홍보 영상, 책자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경기 유니크 베뉴' 브랜드를 국내외 MICE 시장을 겨냥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임





[그림 14] (좌)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우) 부천시, 아트벙커B39

# ■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대표 MICE 행사 '2021 고양 데스티네이션위크' 개최

- 고양 데스티네이션위크는 2017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경기도 MICE 산업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올해에는 '2021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킨텍스 그랜드 볼룸에서 8월 25일~26일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됨
-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컨벤션뷰로가 주관하는 본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등 국 내를 대표하는 MICE 지원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인 국제컨벤션산업협회 (International Convention & Congress Association, ICCA), 글로벌 MICE 컨설 팅사인 게이닝 엣지(Gaining Edge) 등 국내외로 저명한 민관 업체 및 협회가 참 여하여 공신력 있는 행사로 발전함
-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DMO 특화 세션 '아 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 지속가능성 세션 '국제지역 지속가능성 관리 (GDSM) 아시아 태평양 포럼' 등 MICE 산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됨
- 이번 행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한 MICE산업 환경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 함으로써 관계자들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했으며, 일반 시민에게는 코로나19 이 후 도시의 회복을 위한 MICE 산업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였음
-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 데스티네이션위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MICE 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양시를 아시아 MICE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힘



[그림 15] 2021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포스터

# ■ 인천: 인천시·인천관광공사, 하이브리드 행사 유치를 위한 '인천 MICE 온라인 설명회' 개최

- 8월 12일,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행사 주최자에게 하이브리드 행사 개최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인천의 하이브리드 행사 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2021 인천 MICE 온라인 설명회: 하이-브리드, 인천(HIGHbrid, 인천)'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함
- 본 설명회에서는 MICE 행사 주최자가 향후 인천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회의 관련 시설을 소개하였으며, 회의 성공사례 소개 및 지원제도 안내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됨
- 또한, 참가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기술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최초로 크로마키 전용 스튜디오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며, 3D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송출함
- 세부 세션으로는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사전질문을 바탕으로 질의응답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실시간 Q&A 코너, 인천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 인천관광공사 문종건 팀장은 인천은 변화에 대응하여 가상스튜디오, 3D 플랫폼, 화상회의실 등 하이브리드 행사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이 브리드 회의 개최지로 인천이 갖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힘



[그림 16] 2021 인천 MICE 온라인 설명회, 하이-브리드 인천 포스터

# ■ 대전: 중부권 대규모 MICE 행사 개최를 위한 '호텔 오노마' 오픈

- 8월 18일, 대전광역시 최대 럭셔리호텔로 주목받는 신세계그룹의 '호텔 오노마, 오토 그래프 컬렉션 호텔(Hotel Onoma, Autograph Collection Hotels)'이 정식으로 오픈함
- 대전시는 신규 오픈한 호텔 오노마와 내년 준공예정인 대전컨벤션센터 제2 전시 관 그리고 인근의 유니크 베뉴를 연계해 대전 MICE 산업의 숙박시설 부족 문제 를 해결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등 본격적인 MICE 산업 활성화를 위 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 또한,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UCLG 세계지방정부총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제 행사와 컨벤션행사 유치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대전 자체의 수요와 대 규모 행사장이 없는 인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사 개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 그러나, 호텔 오노마의 총 객실 171실과 스위트룸 13개 숙박시설의 트렌드와 이용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전시가 기대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회의 및 행사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있음



[그림 17] 대전 호텔 오노마, 오토그래프 컬렉션 호텔 전경

# ■ 전라도: 여수시·전남관광재단,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MICE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8월 25일, 여수시는 국내학술 행사 위주의 MICE 업계 구조를 국제회의 유치로 재 편성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전남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 여수시는 전남관광재단이 보유한 해외 MICE 마케팅 전담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회의와 해외기업의 행사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며, 향후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 MICE 상품개발 등 다수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임
- 여수시는 7월 MICE 전용 홈페이지인 '여수 MICE (YEOSU MICE)'를 오픈했으며, 하이브리드 및 온라인 회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포스트코로 나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MICE 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여수시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여수의 MICE 행사 경험과 재단의 해외 마케팅 노하우를 결합한 뉴노멀 시대 새로운 MICE 모델을 만드는 등 MICE 산업을함께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그림 18] 여수시 · 전남관광재단 업무협약 체결

# ■ 경상도: 부산시, 부산 대표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 유니크베뉴 특화사업' 대상회의 선정

- 8월 3일, 부산광역시는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MICE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 유니크베뉴 특화사업'을 공모하여 올 하반기 부산시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회의 5개를 선정함
  - 이번에 선정된 국제회의는 '대한화학회 창립 75주년 기념 128회 학술발표회', '제98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국제학술대회', '2020 부산세계어류영양과 사료 심포지엄', '2021 한국줄기세포학회 연례 학술대회', '2021 아세아-오세아니아 면역학회'이며, 국제회의 당 최대 2,000만 원의 개최 지원금을 지급함
- 또한, BEXCO, 누리마루APEC하우스, 영화의전당 등 7개 유니크베뉴를 기반으로, 이색적인 회의명소의 장점을 부각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재방문과 차후년도 회의 재유치를 도모할 계획임
-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문화관광 매력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산의 매력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힘



[그림 19] 부산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감도

\_ \_ \_ \_ \_

# ■ 경상도: 부산시, '2023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준비 도입

- 부산시는 2023년 하반기 개최 예정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28, UNFCCC COP28) 유치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5년 최초 개최된 국제연합의 공식 컨퍼런스로, 전 세계 197개국 2만여 명이 참여해 협약 이행상황과 주요사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행 사로 202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임
-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부산시 외에,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연합한 남해안남중 권 유치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제주시가 유치를 희망함에 따라 유 치를 위한 경쟁 구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당사국총회 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행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량을 상쇄하기 위한 탄소 중립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1만 4,000여 실 이상의 숙박시설 구비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부산시는 총회 유치에 돌입하며 '105인의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2050 탄소 중립 도시 부산' 프로젝트의 추진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내세움
- 경쟁도시인 고양시는 '고양시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및 한국호텔업 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남해안남중권 유치 위원회의 경우 '생활 속 저탄소 실천 운동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환경친화적 인 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매진함

# ■ 경상도: 경주시,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를 지원하는 '경주관광MICE육성센터' 오픈

- 경주시와 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지역관광 추진조직(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DMO)사업자 공모'사업선정을 계기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경주관광MICE육성센터'와 '스마트안전여행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함
- 총 규모는 51㎡로, 회의실, 휴식공간을 겸비한 커뮤니티 라운지와 스타트업과 지역관광·MICE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홍보마케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함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김용국 사장은 경주관광MICE육성센터 개소를 통해 경주 관광 MICE얼라이언스가 자생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관광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그림 20] 경주관광MICE육성센터 개소식

. . . . .

# ■ 광주: 호남 최대규모의 환경전시회 '제12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

- 8월 25일~27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호남지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환경전 시회인 '제12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함
- 전시회는 탄소 중립, 자원순환, 수처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4개의 주제로 구성됐으며, 광주환경공단, 광주과학기술원 등 광주지역 환경 관련 기관과 시업 체 140개사가 참여해 400개 부스를 운영함
- 해당 전시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방역 게이트와 방역 터널을 설치하는 등 방역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전시장 내부도 최고수준의 방역지침을 적용할 계획임
- 부대 행사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했으며, 호남지역 공공기관이 다수 참석한 '물관리 심포지엄',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상담회'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마련함
- 박재우 광주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시회가 탄소 중립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환경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 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그림 21] 제12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포스터

# ■ 강원도: 강릉시, 서계합창대회 정부 공식 지정 국제행사 승인 통해, 2022년 강릉서계합창대회 개최 <u>돌</u>입

- 강릉시와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과 도내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2022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기획재정부의 제128차 국제행시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정부 공식 지정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됨
  - '2022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2022년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개최되며, 70여 개국 2만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릉시 일원과 고성 DMZ 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임
  - 독일의 인터쿨루트재단이 주관하는 세계합창대회는 2000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 린 첫 대회로 2년마다 개최되며, 매 대회에 90여 국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합창대회임
- 강릉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신청을 시작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등에 대회개최의 경제성과 당위성, 타 대회와의 차별성을 입증하 는 등 심사위원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음
- 정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본 행시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개·폐막식, 거리 퍼레이드, 우정 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강릉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임
- 김창규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도내 문화예술계 와 관광업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2022 강릉 세계 합창대회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 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그림 22] 세계합창대회

# ■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지구와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정선포럼 2021' 개최

- 8월 19일~21일, 강원도와 정선군, 강원관광재단은 지속가능한 지구와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정선포럼 2021'을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온라인 무관중 행사로 개최함
  -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정선포럼은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실현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잇기 위해 지난 2018년 '평창포럼'으로 출범한 후 2020년부터 정선으로 개최지를 옮겨 '정선포럼'으로 명명함
- '정선 포럼 2021'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하는 '정선 포럼 탄소 중립 실천 타이머'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의 기조강연, 주제별 토론 세션, 토크콘서트,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됨
  - 미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기조강연에서 '친환경 시대를 향한 미래사회 탄소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탈탄소 압력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함
- 지역 로컬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강원세션', SK E&S와의 협업을 통한 탄소 중립 시대의 지속가능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기업세션' 등 민관을 아울러 국내외 총 20명의 연사가 참여함
- 강원도는 더 많은 관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청 홈페이지, G1 강원민방, 한국경제TV 등 다수의 채널을 동원하여 생중계하는 등 온라인 개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또한, 워크스루(Walk-Through) 형태의 방역시설을 운영했으며,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및 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함